

## 2015 개정 초·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성에 대한 교사 인식

김성혜\*

**Kim, Sung Hye. (2020).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content appropriateness in Korea's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English Teaching*, 75(2), 93-1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English teachers perceive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antity and level of content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In order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odified curriculum, a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English teachers a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cross Korea. Teachers and university professors were also consulted for guidance regarding the appropriate quantity and level of conten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believe that the quantity and level of content are mostly appropriate for students. However, responses related to the appropriateness of achievement standards for reading and writing were less positive than those for listening and speaking for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grades 5 and 6 and middle school grades 1 to 3. In general, methods of optimizing reading and writing content in the English curriculum are discussed.

**Key words:** 2015 national English curriculum, content appropriateness, achievement standards, teacher's perception/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적정성, 성취기준, 교사 인식

---

This work built upon the data from a previous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Report (RRC 2019-5) by S. H. Kim, Y. D. Cho, M. H. Kim, T. J. Park, & H. J. Cho (2019).

\*Author: Sung Hye Kim,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8 Gyohak-ro, Deoksaneup,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27873), Korea; Email: [shkim@kice.re.kr](mailto:shkim@kice.re.kr)

Received 31 March 2020; Reviewed 7 May 2020; Accepted 2 June 2020

© 2020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 (KAT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anyone to copy, redistribute, remix, transmit and adapt the work provided the original work and source is appropriately cited.

## 1. 서론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9)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영어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은 3.2%에서 5.3%로, 고등학교 2학년은 4.1%에서 6.2%로 각각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고 처방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학생의 현재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면 학생 간의 격차가 크게 나거나 학습 결손이 쉽게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학습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학습하고 목표로 하는 성취기준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별로 꼭 배워야 할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선하여 감축’하는 것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학습 내용 감축은 교과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선정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교육/학습 내용의 적정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내용 적정화’는 4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 시 마다 주요 관심사였으며, 주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에 대한 조정을 통한 적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H. Kim et al., 2018; E.-K. Lee, Y.-R. Lee, S.-K. Park, & Y.-K. Jeong, 2004; Y.-R. Lee et al., 2004; K. Lee et al., 2014). 이와 같은 맥락 하에 2015 개정 교육과정도 ‘학습경험의 유의미성과 교과 학문의 체계를 확립하고 학습 양과 수준을 조정하는’ 학습내용 적정화를 모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K. Lee et al., 2014).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적정성 연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와 교과서의 읽기 지문의 난이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성취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읽기 영역 성취기준과 유럽공동 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을 비교한 연구(P.-A. Hwang, 2016)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영어과 교과 역량과 성취기준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M. Kim, 2019; S. Lee, 2016)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교육과정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학습량의 축소나 수준 조정이 실질적인 학습 내용 감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반면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초등학교 3~4학년군 파닉스의 내용 수준과 양을 분석한 연구(Y. B. Yoon, 2019)와 E. Hwang과 K. Park(2019)의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교과서 읽기 지문의 이독성 지수를 분석한 연구, J. Bae(2019a, 2019b)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 읽기 지문의 이독성 지수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교과서 연구는 교육과정 내용의 수준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지만 주로 초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 내용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20년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됨으로써 전면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영어과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에 비추어 교육 내용을 규정하는데 있어 학습 내용 적정화를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교육 내용을 실현하는 학교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2009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15 개정 초·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습 내용 감축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인가?
2. 초·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 학습 내용의 수준과 양의 적절성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과정 내용의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2. 2015 개정 초·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성 분석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필수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여 내용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적정량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적인 내용, 과잉학습을 초래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유사한 개념을 통합하였으리, 너무 어렵거나 쉬운 수준의 내용을 삭제하였다(K. Lee, 2014, p. 391).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주요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성취기준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입력 자료의 난이도와 관련된 어휘 및 언어형식을 개선하였다.

### 2.1. 성취기준의 양적·질적 변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에 필요한 시간 확보를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 수를 축소하여 실제적인 학습량 감축이 실현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필수학습요소를 중심으로 교과 내용을 구조화하여 제시한 내용 체계표에 따라 성취기준별 위계 및 학년군간/학교급간 연계성이 드러나도록 성취기준을 진술함으로써 성취기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다(C. Im et al., 2015a, 2015b). 내용 체계표에서는 핵심 개념을 비롯하여 일반화된 지식, 기능과 같은 새로운 내용 체계 구성

요소를 도입하고 학생들이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수행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성취기준의 양적/질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기준 수의 변화를 영역별, 학년군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초등학교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71개였던 성취기준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45개로 축소되었다. 중학교에서는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47개였던 성취기준이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34개로 축소되었다.

**TABLE 1**  
**Number of Achievement Standards According to Language Area and Grade**

Area	Grade	Elementary 3-4		Elementary 5-6		Total		Middle School 1-3	
		'09	'15	'09	'15	'09	'15	'09	'15
Listening		11	7	10	7	21	14	9	9
Speaking		11	7	10	7	21	14	14	10
Reading		9	5	8	4	17	9	12	9
Writing		4	3	8	5	12	8	12	6
Total		35	22	36	23	71	45	47	34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Ministry of Education (2015)

성취기준의 삭제, 이동, 변형, 신설을 통한 초등학교 성취기준의 질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급에서는 우선 입력 자료의 내용 및 범위를 ‘일상생활 속의 친숙한 주제로’ 한정하였으며, ‘기초적인’, ‘쉽고 간단한’ 등으로 수준을 낮추어 성취기준을 진술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정한 학습활동(찬트, 노래, 게임, 과업), 특정 담화 유형(전화 대화), 특정 언어 형식(지나간 일에 관한 간단한 말)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삭제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음성 언어 성취기준을 강화하면서 읽기, 쓰기 영역 중심으로 성취기준의 수를 감축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따라 읽기’는 3~4학년군, ‘문장 이해’는 5~6학년군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자연스러운 언어 학습이 되도록, ‘문장 이해’를 3~4학년군 성취기준으로 이동하였다. 또한 내용 체계표의 영어 교과 핵심 개념에 따르면 5~6학년군 말하기 영역에는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된 성취기준을 삭제하였다. 반면에 말하기 영역의 핵심 개념인 ‘담화’의 단방향성(예, ~설명할 수 있다/~묘사할 수 있다)과 양방향성(예, 묻고 답할 수 있다)을 고려하여 성취기준을 신설하였다.

중학교 1~3학년군 성취기준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입력 정보 수준을 ‘일상생활 관련 대상,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로 한정하여 성취기준에 반영하였다. 초등학교급과 마찬가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특정 활동과 연관되는 과업수행, 역할극과 같은

활동으로 진술된 성취기준은 삭제하였다.

중학교급에서도 음성 언어 성취기준을 강조하면서 읽기, 쓰기 성취기준의 감소가 많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읽기 영역의 ‘짧은 글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주요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 파악하기’와 ‘짧은 글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는 ‘짧은 글을 소리 내어 읽고 주요 낱말이나 어구의 의미를 파악하기’와 학습 내용이 중복되고 ‘따라 읽는’ 과업 수행만으로 그 차이를 두고 있어 양과 수준의 적정성을 고려할 때 학습 내용의 양을 증가하게 하므로 삭제하였다. ‘줄거리 파악하기’와 ‘주제 및 요지 파악하기’를 병합함으로써 성취기준의 개수를 축소하였다. 또한 ‘글의 연결관계 파악하기’와 ‘문맥을 통해 이어질 내용 추측하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내용에 없는 것으로 학년군 내에서 만이 아니라 학년군 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항목이므로 삭제하였다. 쓰기 영역에서는 내용 체계표의 핵심 개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문장 완성’, ‘중심 내용’, ‘세부 내용’ 영역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삭제하였다.

초·중·고 학교급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취기준을 신설하였다. 듣기 영역의 ‘어구나 문장을 듣고 소리를 식별하기’는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며 의미 파악하기’를 신설하여 읽기 학습에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내용 체계표의 핵심 개념인 ‘맥락’에 기반하여 ‘심정이나 태도 추론하기’와 같은 학습 내용 요소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성취기준을 신설하였다.

중학교 1~3학년군 성취기준 가운데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변형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말하기 영역의 ‘이어질 내용 추측하여 말하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학년군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항목이므로, 학년군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에 대해 묻거나 답하기’로 변형하였다. 쓰기 영역의 ‘주변의 사람, 대상의 (성격이나 특성을) 간단한 문장이나 글로 묘사하기’에서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인 ‘자신’이 누락되었으므로 ‘대상’을 ‘자신’과 ‘주변 사람’으로 분리하여 내용 요소를 ‘자신, 주변 사람, 일상생활’로 변형하여 진술하였다.

## 2.2. 어휘 지침과 언어형식의 변화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별표3] 어휘’의 ‘기본 어휘 관련 지침’과 ‘기본 어휘 목록’ 및 ‘[별표4]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을 개선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학습의 수준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교과서 개발에 있어 기본 어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어휘를 학교급별로 제시하여 교과 내용 수준과 양의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적절하도록 표 2와 같이 조정하였다.

**TABLE 2**  
**Guidelines for Vocabulary in 2009 and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2015
Number of Basic Words	2,988	3,000
Recommended Rate of Use in Textbooks	80%	90%
Elementary School Vocabulary	798	800
Advanced Level Vocabulary	-	400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본 어휘가 총 2,988개이었으며 교과서 개발 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기본 어휘 수 사용 비율을 80%이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 3,000개의 기본 어휘에서 90%로 사용 비율을 확대하여 기본 어휘 목록 외에 추가로 학습해야 할 어휘 수를 감축하였다. 또한, 기본 어휘 목록에 제시된 어휘 중에서, 초등학교 급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어휘 800개와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I에서 새로이 사용 권장하는 어휘 400개를 별표(\*)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accent\**는 초등 권장 어휘이고, *abort\*\**, *accumulate\*\**는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 및 전문 교과I 권장 어휘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제시하였으나 학교급에 따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학교급에 적절한 문장 난이도의 형식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별표 4]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을 학습 시작이 가능한 학교급을 표시하여 초·중·고로 구분하여 표 3에서와 같이 예시문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TABLE 3**  
**Sentence Structures for Communication**

Example	School Level		
	Elementary	Middle	High
Kate is from <b>London</b> .	•		
The <b>water</b> in this river is clean.		•	
The <b>audience</b> is/are enjoying the show.			•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2015, p. 189)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성취 기준의 개수를 축소하여 학습량을 감축하고, 내용 체계표에 근거하여 학교급별 적절한 내용 요소를 반영하였으며, 학교급별 연계성이 높은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내용의 적합성을 높였다. 또한 교과서에 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 반영 비율을 높여 새로이 학습해야 할 어휘의 수를 감축하였으며, 학교급별로 적절한 어휘 및 언어 형식을 제시하여 내용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 3. 내용 적정성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 3.1. 설문 조사

##### 3.1.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15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내용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초등교사는 234명이 참여하였으며, 담당 학년별로 볼 때 3학년 78명, 4학년 90명, 5학년 131명, 6학년은 128명이었다. 중학교 교사는 332명이 참여하였으며, 담당 학년별로 볼 때 1학년 159명, 2학년 169명, 3학년은 186명이었다.

**TABLE 4**  
**Participant Demographics**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i>n</i>	%	<i>n</i>	%	
School Area	Large city	110	47.0	Large city	169	50.9
	Small city	70	29.9	Small city	96	28.9
	Eup · Myeon	54	23.1	Eup · Myeon	67	20.2
Grade	3	78	33.3	1	159	47.9
	4	90	38.5	2	169	50.9
	5	131	56.0	3	186	56.0
	6	128	54.7			
Gender	Male	45	19.2	Male	55	16.6
	Female	189	80.8	Female	277	83.4
Age	20s	41	17.5	20s	38	11.4
	30s	94	40.2	30s	103	31.0
	40s	74	31.6	40s	107	32.2
	50s	24	10.3	50s	80	24.1
	60s	1	0.4	60s	4	1.2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49	20.9	Less than 5 years	62	18.7
	5–10 years	61	26.1	5–10 years	72	21.7
	10–15 years	54	23.1	10–15 years	65	19.6
	15–20 years	38	16.2	15–20 years	45	13.6
	More than 20 years	32	13.7	More than 20 years	88	26.5
Total	234	100.0	Total	332	100.0	

설문 조사는 현재 학생 수준을 고려할 때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교과서)의 학습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수준이 학생의 수준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어휘지침을 설문지에 제시하는 대신에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개발된 교과서로 수업을 하므로 교과서를 생각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는 빈도, 비율, 평점으로 제시하였으며, 평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 3.1.2. 학습 내용 적정성에 대한 초·중학교 영어 교사의 인식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습 내용의 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 5~6학년군 쓰기 내용의 수준 적합성이 평점이 3.5로 3~4학년군에 비하여 낮았으며, 특히 5~6학년군 쓰기 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12%인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3~4학년군에 비하여 5~6학년군 읽기 영역의 수준 적합성에 대한 평점도 3.6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9.8%였다. 또한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량에 대하여도 적정하다는 반응이었으나 초등학교 3~4학년군에 대한 평점이 3.5로 5~6학년군 3.7보다 낮았다.

현재 학생 수준을 고려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교과서)의 학습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응답 결과는 표 6과 같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학습 내용의 연계성이 높다.’에 대한 평점이 3.2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쓰기 영역의 내용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다.’(3.4점),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량(권장 어휘수, 언어형식)은 적합하다.’(3.5점)순으로 평점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 3.2. 면담 조사

### 3.2.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습 내용 적정성에 대한 교사 인식 결과를 검토하고,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어 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는 초등학교 교사 5명(지원청 소속 1명 포함), 중학교 교사 4명, 교수 4명이 참여하였다. 면담 이전에 질문지를 사전에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효과적으로



**TABLE 5**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Content Appropriateness**

Item	Strongly Disagree	Disagree	Un-decided	Agree	Strongly Agree	Average <sup>a</sup>
	n (%)					
The listen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3-4 grade cluster)	3 (1.3)	8 (3.4)	55 (23.5)	134 (57.3)	34 (14.5)	3.8
The listen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5-6 grade cluster)	4 (1.7)	8 (3.4)	60 (25.6)	129 (55.1)	33 (14.1)	3.8
The speak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3-4 grade cluster)	2 (0.9)	9 (3.8)	54 (23.1)	136 (58.1)	33 (14.1)	3.8
The speak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5-6 grade cluster)	4 (1.7)	8 (3.4)	62 (26.5)	131 (56.0)	29 (12.4)	3.7
The read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3-4 grade cluster)	3 (1.3)	11 (4.7)	66 (28.2)	124 (53.0)	30 (12.8)	3.7
The read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5-6 grade cluster)	3 (1.3)	20 (8.5)	69 (29.5)	117 (50.0)	25 (10.7)	3.6
The writ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3-4 grade cluster)	2 (0.9)	14 (6.0)	67 (28.6)	123 (52.6)	28 (12.0)	3.7
The writing content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5-6 grade cluster)	3 (1.3)	25 (10.7)	71 (30.3)	112 (47.9)	23 (9.8)	3.5
The amount of learning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is appropriate. (3-4 grade cluster)	4 (1.7)	26 (11.1)	67 (28.6)	112 (47.9)	25 (10.7)	3.5
The amount of learning presented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textbooks is appropriate. (5-6 grade cluster)	3 (1.3)	11 (4.7)	66 (28.2)	124 (53.0)	30 (12.8)	3.7
The content is connected well across the grade clusters.	3 (1.3)	20 (8.5)	69 (29.5)	117 (50.0)	25 (10.7)	3.6

Note. <sup>a</sup> 234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survey questionnaire used a five-point Likert scale from 1 to 5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undecided; 4 = agree; 5 = strongly agree).

**TABLE 6**  
**Middle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Content Appropriateness**

Item	Strongly Disagree	Disagree	Un-decided	Agree	Strongly Agree	Average <sup>a</sup>
	n (%)					
The listening content presented in th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5 (1.5)	11 (3.3)	123 (37.0)	164 (49.4)	29 (8.7)	3.6
The speaking content presented in th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4 (1.2)	10 (3.0)	130 (39.2)	164 (49.4)	24 (7.2)	3.6
The reading content presented in th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4 (1.2)	13 (3.9)	125 (37.7)	168 (50.6)	22 (6.6)	3.6
The writing content presented in th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is appropriate for the students' level.	4 (1.2)	28 (8.4)	140 (42.2)	142 (42.8)	18 (5.4)	3.4
The amount of learning presented in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is appropriate.	3 (0.9)	25 (7.5)	142 (42.8)	139 (41.9)	23 (6.9)	3.5
The content is connected well to the elementary school level.	10 (3.0)	38 (11.4)	159 (47.9)	115 (34.6)	10 (3.0)	3.2

*Note.* <sup>a</sup>332 middle school teacher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survey questionnaire used a five-point Likert scale from 1 to 5 (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undecided; 4 = agree; 5 = strongly agree).

운영하기 위해 본 연구의 맥락과 목적을 고려하여 구성된 질문지를 면담 참석자들에게 면담 전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질문지 내용을 숙지하고 면담에 참여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와 응답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전 질문지 및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의 영어과 교육 내용의 적정성과 2) 교육과정 성취기준, 어휘, 언어 형식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었다.

### 3.2.2. 학습 내용의 적정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면담결과 초·중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나 문자 언어와 관련된 성취기준의 적정성에 다소 부정적이었다. 이와 같이 음성언어과 문자언어를 구분하여 학습 내용을 제시한 7차 영어과 교육과정 이후 문자언어의 양이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었다(S. Choi & S. Hong, 2008; Y.-A. Lee,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5~6학년의 읽기, 쓰기 성취기준이 3~4학년군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학습량이나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5~6학년군의 읽기, 쓰기 영역 성취기준 적정성의 부족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4학년군에서는 낱말, 어구, 문장을 따라 읽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인데, 5~6학년군에서는 짧은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하거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수준이 갑자기 높아진다. 4학년에서 다루어 지는 문장은 다양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을 어구만 바꾸어 읽는 패턴 드릴이 많기 때문에 5학년에서 요구하는 짧은 글을 읽으려면 학습량이 급증한다. (H교사)

3~4학년군에서는 낱말, 어구를 보고 쓰는 것인데, 5~6학년군에서는 구두로 익힌 문장쓰기, 예시문을 참고한 글쓰기가 나와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5~6학년군 쓰기 성취기준 안에서도 학년에 따른 글쓰기의 위계를 나누기 어려워 명확한 성취기준 진술이 필요하다. (H교사)

이에 대하여 내용 적정성의 문제는 성취기준 진술의 모호성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등학교 5~6학년 읽기, 쓰기 성취기준이 (문자 언어 지도 시간에 비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교사의 성취기준 해석에 따라 수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취기준의 명료성이 떨어지게 되면 교사가 수업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초등학교 3~4학년군의 읽기 성취기준에서 ‘쉽고 간단한 낱말’의 수준과 범위는 교사의 해석 여부에 달려 있어 학생들에게 적정하지 않은 수준의 내용이 제시될 수 있다는 성취기준 진술의 명료성 부족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4영03-03]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 문장을 따라 읽을 수 있다.

[4영03-04]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영03-05] 쉽고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취기준을 읽고 교사가 어느 범위까지 지도해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쉽고 간단한 낱말”의 의미가 명료하지 않으므로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교사들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과 더불어 성취기준 해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상세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성취기준 해설에서 “[4영03-03] 쉽고 간단한 낱말이나 어구, 문장을 따라 읽을 수 있다.”는 교사나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원어민 음성을 따라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한다. 소리 내어 읽는 과정을 통해 영어의 발음, 강세, 리듬, 억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에서 “쉽고 간단한 낱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J 교사)

이는 성취수준의 위계설정이 부족하여 적정성을 저해한다는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5~6학년군 쓰기 성취기준에서 ‘예시문을 활용한 글쓰기’ 성취기준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교과서에 따라 이를 5학년 1학기부터 도입하기도 하고, 학년군별로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보니 해당 학년에 적절하지 않은 성취기준을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5~6학년군의 읽기, 쓰기 성취기준에서 하향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글쓰기와 관련하여 난이도가 높은 성취기준은 교과서에서 5학년이 아닌 6학년부터 적용하거나 혹은 5학년에서도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성취기준의 학년군별 제시의 문제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성취기준이 학년군별로 제시되어 학생들이 3학년에 미처 도달하지 못한 성취기준이 있다면 4학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점은 좋으나 교사가 성취기준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4학년에 지도해야 할 성취기준을 3학년에 지도하거나, 3학년에 배웠으리라 생각하여 지도하지 않았지만 3학년에 배우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5~6학년의 읽기와 쓰기 성취기준은 학년 간의 위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K교사)

성취기준 뿐만 아니라 영어 교과 학습 내용을 이루고 있는 어휘, 언어형식, 의사소통기능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를 선별하고 위계를 두어 구분하여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내용의 수준 적정화를 위해 어휘를 통제하고 있고, 학교급별로 사용 가능 형식과 의사소통기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개선하여 어휘 목록에서는 빈도와 범위를 고려하여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어휘를 표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별 권장 사항으로 구별되어 있는 언어형식 및 의사소통능력을 학년별 또는 수준별로 위계화한 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초등학교 학년군별/학년별 필수 어휘, 의사소통기능문 구분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영어권 국가에서 문자 언어를 배울 때 소리와 철자를 익히는 학습을 1~2년간 집중 연습을 통해 배우게 된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는 3~6학년에 걸쳐 소리와 철자를 배우게 되어 있다. 결국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문장과 문단을 접하게 되어 부진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초기 단계에 적어도 한 학기 이상 100단어 정도의 필수단어(학생들이 자주 쉽게 접하게 되는 단어군)를 기본 문형과 함께 제시해 다양한 게임 등을 통해 연습하게 하면서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등4년간 사용하는 어휘와 의사소통기능들이 학년구분 없이 제시되어 저자들에 따라 다루는 학년이 다르다(같은 종류의 교과서를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우지 않고 지나가는 어휘나 의사소통기능이 생기게 된다). 교육과정에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다루어야 할 어휘와 의사소통기능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L교사)

중학교의 경우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적정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성취기준, 어휘 및 언어형식을 제시하는 방법의 개선을 통해 적정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취기준이 학년군별로 제시되어 있고 어휘나 언어형식이 학교급별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계가 부족하여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현재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적정성(양과 수준)은 전국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야 할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적절하지만 단위학교별 현장에서 학습부진 학생 대상 수업의 소규모 학급 편성 및 운영을 통해 어휘나 기본적인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준을 맞춘 교육과정 내용 안에서의 (대상 학생을) 위한 언어형식이나 의사소통기능의 제시가 요구된다. (E교사)

이와 더불어 학습부진 학생의 지도를 위해서는 교과 내용의 위계 설정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학년군별, 학교급별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학년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교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학년별로 달성해야 할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학습부진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부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러한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처방과 진단을 해주기가 어렵다. 영어 교과서를 예를 들면, 교과서의 구성은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주제에 대해 관련 어휘나 언어형식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휘나 언어형식이 단계나 순서가 없다. 영어 학습부진 학생의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발생한다.

영어가 수학과 역사처럼 단계적이거나 시간의 흐름과 같이 명쾌한 기준에 의해 정리될 수 있는 과목은 아니나 제2외국어로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제시된다면 학습자 입장에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C교사)

학년에 맞는 의사소통기능과 언어형식이 정해져 있고, 이런 기본 틀에 출판사마다 단어와 글감을 달리하면 좋을 것 같다. 영어의 경우 출판사마다 사용하는 의사소통기능과 언어형식이 다르고 순서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문제집이나 인강을 제작해도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기가 어렵다 ... 영어는 수학이나 과학과는 다른 성격의 과목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년별로 핵심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의 언어형식만 봐도 분명한 위계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계에 따라 성취기준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학년에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따라서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진단과 보정도 용이해질 수 있다. (Y교사)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육내용의 적정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 학습량과 수준의 관점에서 적정한지를 현장 교사의 인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의 수준과 양의 적정성에 대하여 교사들은 대체로 평점 3.0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5~6학년군 쓰기 내용의 수준 적합성이 3~4학년군에 비하여 낮았으며, 특히 12%의 교사들은 5~6학년 쓰기 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군 읽기 영역의 수준 적합성에 대한 평점도 3.6으로 3~4학년군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9.8%였다. 학습량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3~4학년군에 대한 평점이 3.5로 5~6학년군보다 낮게 나타났다. 중학교 1~3학년군 성취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쓰기 성취기준에 대한 적정성(3.4점)이 듣기(3.6점), 말하기(3.6점), 읽기(3.6점)보다 다소 부정적이었다. 또한 초등학교와의 연계성에 대한 평점은 3.2점으로 성취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보다 평점이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J.-K. Pae 등(2019a, 2019b)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J.-K. Pae 등(2019a)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은 3~4학년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내용 수준은 쓰기 영역이 가장 어렵고, 교과서 내용 수준은 읽기와 쓰기

영역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J.-K. Pae 등(2019b)에서도 초등학교의 경우 5~6학년군 읽기, 쓰기의 학습량은 3~4학년군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며, 내용 수준도 높아진다는 면담 결과를 제시되었다. 특히 5~6학년군 쓰기 영역의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기와 글 쓰기’는 3~4학년군에 비해서 급격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초·중학교 교사들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학습 내용 수준과 학습량은 적절하나 학습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교과 내용 적정성의 저해 요인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은 교과 내용의 제시가 모호하고, 위계설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수업에서 구현될 때 학습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영어 읽기, 쓰기 영역은 학년군의 연계성과 학교급별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습 내용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교육과정의 상세화 및 구체화를 통해 교육과정 내용의 이해를 돕고, 학생의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맥락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학습부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취기준의 위계를 설정하여 학년별/수준별로 제시한다. 성취기준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임과 동시에 학생들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성취기준 도달에 적합한 지도 계획을 세우고,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보충지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인 성취기준의 위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의 성취기준은 학년군별로 제시되어 있어 학년별 수준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3~4학년군/5~6학년군의 둘로 나뉘어 있는 성취기준을 학년별/학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는 것이 현장에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성취기준 진술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성취기준의 해설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3~4학년군 듣기 성취기준 중 ‘[4영01-01] 알파벳과 낱말의 소리를 듣고 식별할 수 있다.’의 경우 알파벳의 어떤 소리를 어떤 순서로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알파벳과 낱말의 소리를 지도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제시해 주면 교사는 해당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선별하고 적절한 보충학습 계획을 세워 지도하게 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1~3학년군의 말하기 성취기준을 예로 들면, ‘[9영02-08] 개인 생활에 관한 경험이나 계획에 대해 묻거나 답할 수 있다.’에서 개인 생활이 의미하는 범위나 어느 정도의 어휘와 문장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화하여 줄 수 있다.

셋째, 교육과정 교과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기초 및 필수 내용을 선별하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역시 학습부진을 진단하고 보정하는 데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각 언어 영역별 성취기준을 기초 또는 필수 성취기준으로 분류하여 표시해 둔다면 학습부진을 판별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성취기준을 기초 또는 필수로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휘, 의사소통기능, 언어형식 역시 학습부진의 기준이 되는 기초군을 분류하여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학습부진의 경계가 되는 지점은 초기 읽기 능력의 습득과 곧바로 연결되므로 빈도가 높은 단어 또는 일견단어를 토대로 한 기본 어휘 목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자 언어 관련 성취기준의 학년군 및 학교급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독성 지수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구체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의 읽기 지문의 가독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5학년과 6학년 사이의 가독성 차이는 미국 학제 기준으로 한 학기 정도 차이가 났다(E. Hwang & K. Park, 2019).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텍스트 사이에는 미국 학제 기준으로 한 학년 이상의 가독성 수치 증가의 결과가 나왔다(J. Bae, 2019a),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지문 가독성 수치는 미국 학제 한 학년만큼의 수치 증가가 나타났다(J. Bae, 2019b). 이는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이의 이독성 지수 증가보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사이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결과이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읽기 지문의 이독성 차이가 학생들에게 읽기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서는 Lexile, Accelerated Reader 등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력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에 적합한 텍스트를 제시하는 데 널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배우는 영어권 국가에서 개발된 이독성 지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환경과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언어를 배우는 속도와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수준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중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성취수준과 연계되고, 한국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한국형 영어 이독성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Applicable levels: Elementary, secondary



## REFERENCES

- Bae, J. (2019a). A continuity analysis of the reading passage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with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oder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3(2), 81-107.
- Bae, J. (2019b). A study about the analysis of readability of English textbooks with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selection of children's English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8(2), 117-141.
- Choi, S., & Hong, S. (2008). A comprehensive review of issues related to primary written English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Studies 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34(4), 215-236.
- Hwang, E., & Park, K. (2019).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ding passages in English textbooks between elementary school 5th and 6th grade under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Foreign Languages Education*, 26(3), 99-119.
- Hwang, P.-A. (2016). A study on the adequacy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primary English reading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5(4), 147-165.
- Im, C., Lee M., Lee, H, Kim, S., Joo, H., Cho. B. K., ... Lee, H. (2015a). *Development of 2015 revised curriculum I: English curriculum*. (Report No. CRC 2015-21).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Im, C., Lee M., Lee, H, Kim, S., Joo, H., Cho. B. K., ... Park, J. (2015b). *Development of 2015 revised curriculum II: English curriculum*. (Report No. CRC 2015-25-12).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im, M. (2019).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competence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3(2), 108-117.
- Kim, H., Lee, M.-K., Yang, Y.-J., Pae, J.-K., Lee, Y.-M., Kim, J.-Y., ... Lee, S. E. (2018). *Study on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subject curriculum (I): Monitoring system design*. (Report No. RRC 2018-5).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im, S. H., Cho, Y. D., Kim, M. H., Park, T. J., & Cho, H. J. (2019). *Improving the national curriculum for math and English low achiever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Report No. RRC 2019-5). Jincheon: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E.-K., Lee, Y.-R., Park, S.-K., & Jeong, Y.-K. (2004).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levance of contents in English subject at primary and secondary level*. (Report No. RRC 2004-1-11).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K., Jeong, Y.-K., Seo, Y., Jeong, C., Choi, J., Park, M., ... Kim, S. (2014). *The study on exploring directions for curriculum development*. (Report No. CRC 2014-7).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S. (2016). Major changes and issues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With a focus on its common curriculum. *Korea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Evaluation*, 16(7), 499-519.
- Lee, Y.-A. (2015). A surve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about the 2009 National English Curriculum. *Primary English Education*, 21(2), 5-37.
- Lee, Y.-R., Kang, D.-H., Park, S.-Y., Park, S.-K., Seo, J.-Y., Song, H.-J., ... Jeong, Y.-K. (2004).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levance of contents in national common basic subjects at primary and secondary level*. (Report No. RRC 2004-1-1). Seoul: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English curriculum*. (Proclamation No. 2011-361). [Supplement 14].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 *English curriculum*. (Proclamation No. 2015-74). [Supplement 14].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4, September 24). *Proclamation of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Press Release]. Retrieved on March 1, 2020, from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0101&opTtype=N&boardSeq=56875#>
- Ministry of Education. (2019, March 28). *Plans for strengthening the basics for a happy education*. [Press Release]. Retrieved on March 1, 2020, from <https://moe.go.kr/sn3hcv/doc.html?fn=9e29e6850f63d611fe37798e88a4647f&rs=/upload/synap/202006/>
- Pae, J.-K., Kim, J.-Y., Kim, S., Bae, H., Cho, Y. D., Kim, H., ... Kim, H. (2019a). *A Study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implementation: Focusing on the 3rd and 4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Report No. RRC 2019-1). Sejong: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Pae, J.-K., Park, S.-Y., Kim, J.-Y., Kim, H., Do, J., Park, Y., ... Ra, J. (2019b). *A study on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subject curriculum ( II): Monitoring and its results focusing o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Report No. RRC 2019-1). Sejong: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Yoon, Y. B. (2019). An analysis of phonics in primary English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8(1), 99-116.